

전통춤프로그램이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나래¹, 조태선^{2*}

¹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tional Dance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oster Care Children

Na-Rae Bae¹, Tae-Seon Cho^{2*}

¹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가정위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친부모를 대신하여 규정된 시간 안에 계획 하에 구성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위탁보호 아동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중 큰 부분은 대인관계 부적응이다. 긍정적이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전통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를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한 대인관계 효과를 검증하여 전통춤프로그램이 대인관계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춤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하였다. 아동간의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등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초기에는 프로그램에 적극성이 떨어졌으나 프로그램 중반으로 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중반부로 갈수록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의사소통 횟수가 증가 하였으며, 또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향상 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통춤을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에 대한 기초연구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전통춤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가정위탁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oster care system is a social welfare service that supplements the functions of the family while enabling children, who cannot receive proper care from their biological parents, to receive the necessary protection under the plan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ithin a substitute or foster family. A large part of the emotional instability experienced by foster care children is interpersonal maladjustment. Low self-esteem leads to difficulty in forming social relationships due to nega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aditional dance programs on the foster children who liv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 comparison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personal scores showed that the scores were improved after the traditional dance program, and the children's intimacy 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re also improved. The participants were less active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but became more interested and more active toward the middle of the program.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their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the formation of intimacy toward the middle of the program, and their self-confidence improved in terms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aditional dancing 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 subsequent study, a traditional dancing program consisting of various contents will be appli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should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skil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helping foster children reduce their emotional instability with systemic and diverse traditional dance programs.

Keywords : Communicative Competence, Foster Care Children, Intimacy Form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raditional Dance Programs.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Tel: +82-10-2201-9686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vised October 25, 2017

Revised November 9,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가출 등 가족해체의 가속화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요보호아동들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위탁되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제도는 UN의 아동권리위원회 의 2차 권고로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가정위탁보호는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이 부모에게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친부모를 대신하여 규정된 시간 안에 계획 하에 구성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대리적 서비스인 가정보호사업 중의 하나이다. 가정위탁 보호는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목표로 하며 친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서비스이다.

가정위탁보호 유형은 위탁부모의 특성에 따라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위탁과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위탁을 하게 되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이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와 중앙건강강화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5,226명 발생하였고, 그 중 634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하였고, 4,592명은 보호조치 되었다. 보호조치 내용 중 가정보호 비율은 36.9%, 시설보호비율은 63.1%로 나타났다 [1].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아동은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였다. 위탁사업의 목표는 친가정의 양육능력이 회복되어 아동들이 친가정 복귀라는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

위탁가정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를 받아 친가정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립연령이 되어 위탁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가정아동은 청소년기에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친밀감, 성

취감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해 불안정적인 심리적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은 물론 대인관계가 어려운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신체적 건강도모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2].

위탁가정아동들의 심리적인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지원은 위탁가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향상에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전통춤 프로그램이 위탁가정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전통춤

전통춤은 외국의 음악보다 친숙하며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전통 춤은 기본적인 호흡법, 발동작 및 걸음걸이를 바탕으로 상체 및 하체동작과 연결동작으로 전통춤의 중심동작을 설명할 수 있다. 전통춤에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호흡법이다. 전통춤에서 호흡법은 신체를 통제하며 동작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올바른 호흡법을 통해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화 되는 효과가 있다. 정확한 호흡법은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는 동작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체 표현력을 기르고 우리 몸에 대한 이해와 신체의 움직임, 우리 몸의 중심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각과 민감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내면의 감정표출을 통해 신체적 동작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정서와 신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전통춤은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으며,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 전통춤은 무리한 동작이 없으며 동작을 통해 내면의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이완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한국 전통춤은 표면적으로는 동작이 없는 듯 하면서도 셀수 없는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내고 완성되는 예술의 미학이라 할수 있다 [3]. 아동들에게 전통춤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예의

범절 교육을 익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고, 대화법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2].

2.2 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제도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에게 시설보호보다는 안락한 환경의 가족적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가정적인 친숙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4].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정위탁의 정의, 가정위탁센터의 설치근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정위탁제도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정서적,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친부모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6].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혹은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시도되어 오다가 2000년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유지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5,7].

2.3 대인관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해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에 이뤄야 할 발달과업이기도 하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대인관계는 행복감과 소속감, 또래와의 긍정적인 유대감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이다 [7].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고독, 불안, 공포, 절망,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위탁아동은 원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에 빠

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위탁보호아동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중 대인관계 부적응은 대부분 행동장애와 함께 수반된다. 긍정적이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경계심을 나타내며 방어적이고 생활상의 기능장애까지 나타난다 [6].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가정위탁 아동 중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세~16세 가정위탁 아동의 자발적 참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과거 전통춤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남학생3명, 여학생3명으로 총 6명의 아동들이 주1회 50분씩 전통춤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2016년 6월 21일부터 8월9일까지, 총7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2]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기초동작으로 머리부터 윗몸, 팔, 손, 허리가 중심이 되는 상체동작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통춤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송재섭 선생님의 감수를 받았으며, 교육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님의 진행으로 실시되었다. 전통춤 세부 프로그램(Table 1)은 1회기에 강사소개를 하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2회기는 신체에 대한 이해, 호흡에 대한 이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3회기에서 상체동작을 학습하였고, 4회기는 발 동작을 학습하였으며, 5회기와 6회기에는 상체와 발동작을 연결하는 동작을 학습하였고, 7회기는 1회기에서 6회기까지 배운 동작을 발표하며 학습하며 마무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아동을 관찰하고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 관찰은 사회복지전문가와 심리상담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아동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작성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들은 연구자와 자유로운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대인관계에 만족감, 친근감, 이해성, 의사소통, 개방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1. Detailed Program

Session	Activity
1	Orientation -Introduction -Intimacy formation
2	Understanding Traditional Dance -About the body -Understanding breathing
3	Upper body -Raise your arms -Open your arms -Slanting arms up
4	Foot motion -Kachi step -Ima step -Wanja step
5	Connection action -Practice using upper body motion and foot motion -Repetitive practice
6	
7	Finish Traditional Dancing Presentation

4. 연구결과

프로그램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16세까지의 가정위탁 세대 대상자 6명이 참여 하였다. 성별은 남자3명, 여자3명이었으며,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 4명, 중학교 3학년이 2명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Grade
1	Female	Middle school grade 2
2	Male	Middle school grade 2
3	Female	Middle school grade 2
4	Male	Middle school grade 2
5	Male	Middle school grade 3
6	Female	Middle school grade 3

Table 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ale - Change between Pre and Post

Participants	Change between Pre and Post	
	Pre	Post
1	62	64
	52	57
2	68	77
	66	70
3	69	73
	52	68
4	62	68
	64	68

6명의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와 심리상담전문가가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보조 교사가 기록하여 현장일지를 작성하였다.

대인관계척도는 최성식과 김성희연구 [10] 에서 사용된 척도를 연구에 맞게 수정해서 18문항을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 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형성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각 대상자별 대인관계 사전 사후 점수변화를 보면(Table 3), 참가자1의 사전 대인관계는 62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후, 64점으로 상승하였고, 참가자2의 경우 사전 대인관계점수는 52점이었으나 종료 후 점수는 57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3은 사전 점수는 68점에서 사후점수는 77점으로 9점 향상된 모습을 보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참가자4는 사전 점수는 66점, 사후점수는 70점으로 대인관계점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참가자5는 대인관계 사전 점수는 69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점수는 73점이었다. 참가자 6은 사전 점수는 52점이었고, 대인관계 사후점수는 68점이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구자는 아동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하며 대인관계향상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1:

참여자1은 초기에는 혼자 동작을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적극성을 보이며 표현을 잘하는 모습이였다. 동작을 배우고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고 군무로 표현해보라는 부분에서 타인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낮아 친근감의 영역은 낮게 관찰되었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참가자와 동작을 표현하고 단체 활동 수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접촉빈도가 관찰되었다. 의사소통면에서는 초기에는 조용했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기 표현이 늘어났으며, 웃음이 많아졌다. 참여자 스스로도 밝아졌다는 말을 했다. 수업 후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라는 부분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후반부로 갈수록 수업 후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부분에 두려움 없이 표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며 이해도 잘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전통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부분에 필요한 말만 하였지만, 프로그램의 후반부에는 편하게 전통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여자2:

참여자2는 다른 참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친근감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의사소통 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잘 나타내며 상대방의 의견에 답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장점을 말할 때,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등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해성 부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이 서툴렀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부분도 어려웠다. 개방면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점을 즉시 표현하며 개방하는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3:

참여자3은 친근감 면에서는 프로그램 초반 상대방과 조심스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회기부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의사소통부분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흥미를 느껴 의사소통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춤을 추며 느낀 자신의 장점 말하기에서는 10가지 이상을 쉽게 말하며 자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자신에 대해 짜증난다. 화가 난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많이 하였고, 타인과의 감정소통에 어려움을 보였다. 개방성에서는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만 필요한 말만 하였지만,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참여자4:

참여자4는 인사를 하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고 땅을 바라보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보여 친근감에 어려움이 관찰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친구들의 눈을 바라보며 소통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의사소통면에서는 2회기부터 친구들과 의사소통 횟수가 많아졌으며, 적극성이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장점을 표현할 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진통춤 활동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개방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참여자5:

참여자5는 친근감 면에서 초기에는 어색함을 느꼈으며 이성의 참여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에 불편해 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성의 참여자에게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사소통 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잘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 보였다. 만족감 면에서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장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해성 면에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표현도 동작에 감정을 실어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방성 면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성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을 하며 일관성 있게 자신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6:

참여자6은 친근감 면에서는 프로그램 초에는 친구와 소통할 때 어색한 모습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종료 후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중반부로 갈수록 친근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의사소통 면에서는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만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기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의사소통 횟수가 높아졌다. 만족감 면에서는 회기 초 자신의 장점을 말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후 자신의 장점을 말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게 말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성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모습에서 감정 없이 응대하는 모습이 나타나, 공감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방성 면에서는 개방성 정도가 높지 않았으나 종결 회기로 갈수록 개방정도가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통춤 프로그램이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통춤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하였다. 아동간의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등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초

기에는 프로그램에 적극성이 떨어졌으나 프로그램 중반으로 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자주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중반부로 갈수록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의사소통 횟수가 증가 하였으며, 또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향상 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통춤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에 대한 기초연구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전통춤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가정위탁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부분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인관계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통춤프로그램이 보급되어 가정위탁아동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Foster Care System Report, Central Foster Care support center, pp. 18, 2016.
- [2] Na Rae Bae, "A Study on Effect of the Children Culture Art Education Program Activity in Local Child Care Center - Focusing on Traditional dance program -",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 operation Society*, Vol. 18, no. 8, pp. 115-12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8.115>
- [3] Ran Gung, "The Influe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on Children's Emotion of Dan", *Journal of Korean Dance*, vol. 26, no. 1, pp. 131-154, 2008.
- [4] Na Rae Bae, Chung Sun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Grandchildren Rearing Experiences of Surrogate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3, pp. 333-352, 2013.
DOI: <https://doi.org/10.13049/jofw.2013.18.3.333>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tudy on Foster Care Children Panel, Central Foster Care support center, p. 6, 2014.
- [6] National Foster Care Center. The Legal Protection for Foster Children, pp. 13-21, 2012.
- [7] Nam Soon Huh, "Child headed family and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10, pp. 57-81, 2000.
- [8] Hee Jin Kim, Jang Won Choi, Jee Hyun Lee, "Theses : Society, Culture and Consilience Session ; Juvenile's Inter-Relationship and Adapting School Life: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 9, no .1, pp. 273-298, 2012.

- [9] Sun Wuk, Jeoung, "A Study on attachment style and peer relationship of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VS adolescents in their hom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0, pp. 149-172, 2002.
- [10] Seong Sik Choi, Seong Hoi Kim, "Harmonic Interpersonal Scale Development for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0, no. 30, pp. 251-269, 2007.
- [11] Seung-Kyung Choi, Min-Chan Gil, Min-Shin, Kim, The "Effect of State of Makeup and Makeup Behavior Factors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5, pp. 409-420, May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5.84>
- [12] Ga-Won Seo, Myoung-Jin Kwon, Influencing of Self-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439-449, June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6.27>

배 나 래(Na-Rae Bae)

[중심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

조 태 선(Tae-Seon, Cho)

[중심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5월 : 한국문화예술융합협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6월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